

朝鮮의 使節과 日本使臣 間의 交易品을 통하여 본 朝鮮 前期의 織物文化

이 자 연

신라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학과

Cloths Culture Study Based on the Trade Goods between Chosun Envoy and a Japanese Envoy in the Early Chosun Dynasty

Ja-Yeon Lee

Dept. of Fashion Design & Industry, Silla University

(2003. 6. 17. 접수 : 2003. 11. 15. 채택)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reveal an aspect of costume culture and a phase of the cloths in the relationship of the Chosun dynasty, by considering the exported goods from the Chosun dynasty of the trading goods derived by the trade diplo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Chosun dynasty-Japan relationship in the 15th and 16th. The research findings, by analyzing various literatures and related documents, follow.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 The exchange was the form of presenting a return present in return for a tribute to the Chosun dynasty from the Japanese envoy, which has a polycentric characteristic. Pusanpo, Naipo, and Yumpo were designated as the open ports, which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Korea-Japan exchange. The imported goods were somok, peppers, drug-stuffs, gold, bronze, sulfur, etc. The exported goods were books and cloths, such as hemp cloths, cotton cloths, silk, etc. The majority of exported goods was cloths, particularly cotton cloths. Meanwhile, in the 15th and the 16th century, with expanding of active trade towards Japan, the amount of export increased rapidly. As a result of the increase of exporting cotton cloths, the raw cottons production was increased and cotton cloth manufacturing was developed. However, it also expanded a dual structure of cotton cloths between the cotton cloths for exports and the cotton cloths for domestic markets. This dual structure of cotton cloth was lead to the deterioration of cotton cloths and had an effect on the price increases of domestic markets.

Key words: Chosun communication Facilities(조선통신사), cotton cloths(면포), Japanese envoy(일본사신), trading goods(교역품).

1. 序 言

조선시대 조선통신사를 포함한 조선의 사절과 일본사신들의 빈번한 왕래는 당시 일본과 조선과의 관

계를 다채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朝·日間의 우호왕래의 역사에 주박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¹⁾ 이러한 사실들의 내왕은 兩國의 무역뿐만 아니라, 文化的 交流도 컸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朝鮮時代 朝·日關係에서 조선의 使節과 日本使臣간의 政治的 文化的 交流가 빈번하

[†] 교신저자 E-mail : jylee@silla.ac.kr

1) 金龍鮮譯, 中村榮孝, 일본은 우리가 키웠다 조선통신사 (서울: 東湖書館, 1982), p.162.

었던 점에 注目하여, 15, 16세기에 전개되었던 두 나라간의 교역에서의 교역품 중, 직물류를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조선 전기의 직물문화와 朝·日關係에서의 服飾文化의 한 면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내용으로는 朝鮮時代의 對日關係와 양국 사신의 교류에 관하여 살펴보고, 당시 전개되었던 朝·日交易의 성격을 파악한다. 또한,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교역품과 그 특성에 관하여 살펴봄, 특히 교역품에 포함되었던 직물류를 중심으로, 답사품으로서의 직물류가 어떤 이유로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또한, 직물류의 거래내역 및 거래량에 관하여 검토하고, 조선사회에서의 직물류의 位相에 관하여도 고찰하여 봄으로써, 조선 전기의 직물문화 및 朝·日 間의 복식문화의 한 면을 밝힌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교역품은 조선 사절 및 일본사신이 가지고 가는 물품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研究方法으로는 각종 文獻과 朝鮮王朝實錄 등 關聯 史料 等の 記錄을 참고로 하여 考察한다.

II. 朝·日 外交와 使臣의 交流

1. 倭寇의 침입과 朝·日 外交

朝·日 양국의 외교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倭寇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조선시대 對日關係는 왜구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고, 일본의 세 세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노력도 왜구금압을 위한 것이었다. 왜구침입에 관한 기록은 이미 삼국사기에 나와 있을 정도로 오래 되었지만, 고려 말의 왜구침입은 충정왕 때(1350년)부터 시작하여 가장 심했던 것은 우왕 때로 재위기간 동안 부러 378회에 달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극심한 왜구의 침입에 대해 고려는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왜구의 소굴을 직접 토벌하기도 하고, 일본의 세력가들에게 사절을 파견하여 왜구금지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왜구금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조선 초의 왜구 대책도 여말의 양면 정책을 그대

로 계승했지만, 양국의 국내 정세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군사적인 방법보다는 왜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들을 회유하여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조선은 건국 후 점차 신홍왕조의 기틀을 닦아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어가고, 일본도 남북조통일이 이루어져 정세가 안정되자, 양국 모두가 대외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갔다. 즉, 조선은 태조 즉위 직후인, 1392년 11월 覺鏡를 일본에 파견하여 왜구금압을 요청함으로써 왜구침입금지와 함께 피로인의 송환을 약속 받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교섭의 단서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규슈 지방을 비롯한 壹岐, 對馬島 등 조선과 근접한 지역의 중소 영주들이 보낸 사자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태조 연간(1392~1398)에 사자의 명칭을 가지고 왕래한 예를 보아도 부러 28차례나 이를 정도였다. 이러한 조선측의 왜구금압을 위한 다양한 노력, 즉 왜구침입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대응과 조선통신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장군 세력이나 중소 영주 또는 지방 세력가들과의 외교적인 교섭, 투항자에 대한 식량과 관직 수여 등의 귀화 정책은 상당한 실효를 거두어 양국 관계에 커다란 진전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 노력질을 하던 왜구가 통상을 요구하는 興利倭人³⁾으로 변화되는 등 왜구금압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특히, 통신사의 일본 파견은 朝·日 양국의 통교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양국의 문화적인 교류 또한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본으로부터도 國王使를 비롯한 諸僉使 등의 일본사신의 내왕이 빈번하여졌다. 이에 따라 태종 7년(1407)에는 군사적 경제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포를 한정하여 부산포와 내이포가 최초로 개항하게 되었으며⁴⁾, 세종 8년에는 부산포와 내이포 외에 엽포를 개항하여 무역하게 함으로써, 朝·日간의 교역은 이 삼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역은 임진왜란 이후, 1609년 기유약조의 체결로 조선 전기 대일 통교의 중심지였던 三浦는 임신약조와 정미약조를 거치면서 내이포와 엽포가 폐쇄되고, 부산포가 유일한 開港地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2) 나종우, "한국중세대일교섭사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참조.

3) 『太祖實錄』 太祖4年 12月 癸卯.

4) 『太宗實錄』 卷14, 太宗7年 7月 戊寅條.

2. 朝鮮通信使를 포함한 朝鮮使節과 日本使臣의 交流

일본에 대한 交隣外交는 금구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화유정책으로, 금구교섭을 위하여 평화적인 사절을 파견하였는데, 이것을 통신사라고 하였다. 통신사란 서로 친분을 교류한다는 의미이며, 조일 양국의 평화적 우호적 선린관계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일본에 조선사절이 파견된 것은 1428년부터 1529년 임진왜란 전까지 약 7회,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이르고 있으며, 통신사 일행은 남쪽의 대외관계를 보다 안정되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修好와 장군의 즉위를 축하하고, 일본 사정을 자세히 파악해 두고자 하는 목적에서 파견되었다⁵⁾.

한편, 일본의 토쿠가와막부는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으나, 특례로서 長崎에서 네덜란드 및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었고 對馬島에서는 조선과 무역을 하고 있었다. 德川 幕府가 조선통신사를 맞이한 목적은 조선과의 무역으로 막부의 재정을 풍부히 함과 동시에, 통신사를 맞아 장군의 위광을 전하에 과시하여 德川정권의 안테를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통신사 접대에 드는 향응을 위한 여러가지 비용을 大名들에게 부담시켜 大名들의 경제력을 소모시키고자 함이었다⁶⁾.

일본으로부터는 해마다 배를 타고 정례적으로 조선에 오는 연례입국예인이라 불리는 일본사신들이 있었다. 연례입국예인은 기유약조에 나타나 있는 歲遣船을 타고 오는 일본인을 말하는 것으로 세건선에는 國王使船, 對馬島 島主의 歲遣船, 受圖書人船, 受職人船이 있었다. 國王使船은 國王 즉, 關白의 使送船을 말하는데, 후에는 對馬島 島主가 국왕을 대신하여 사신을 보내는 大差倭로 대신하였다. 對馬島主의 歲遣船에는 己酉約條의 규정에 의하여 20척으로

제한하였으며, 受圖書人船이란 조선 정부로부터 圖書을 받은 일본인의 送使船으로서, 己酉約條의 체결 당시에는 己酉約條에 관계하였던 日本國師인 玄蘇와 對馬島 島主인 宗義知의 家臣인 야나가와시게노부 뿐이었으나, 그 후 萬松院送使船, 流芳院送使船, 以配庵送使船, 平彦三送使船이 생겨났다. 受職人船은 조선 정부로부터 관직을 받은 일본인이 연례적으로 타고 오는 선박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정례적으로 오는 선박을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입국한 예인의 수를 추정에 보면, 약 1,500명 정도가 된다⁷⁾.

예선의 출입상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조선건국 후 예선의 출입을 통제하면서부터 중종 5년(1510) 삼포왜란까지 부산포를 출입한 倭船數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三浦에는 막부장군의 國王使船과 호족의 巨酋船, 九州절도사선, 對馬島船, 受職人船, 受圖書人船 등 歲遣船의 허용된 것과 조약을 맺은 各級 船의 총수는 204船 내지 218船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⁸⁾. 이밖에 일시적으로 내왕한 것을 합하면 더욱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成宗 11년(1479)부터 肅祖 21년(1588)까지의 약 100여 년간 朝鮮에 건너온 日本의 使節은 총 1,634회에 달하며, 그 중 日本國王使의 派遣은 31차례에 이른다고 한다⁹⁾.

한편, 朝鮮에 來朝한 倭人の 數를 보면, 使行에 따른 규모의 차이나 선박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世宗 6년(1424)의 國王使行에 대해 보면, 송선 16척에 523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수가 도래하였으며¹⁰⁾, 巨酋使의 경우도 많은 인원이 내왕하고 있다. 물론 배의 규모에 따라 탑승인원도 달랐겠지만 世宗 21년(1439)에 입국자의 인원 규제법에 의하면, 大船은 40명, 中船은 30명, 小船은 20명으로 정원을 정한 것으로 보아, 한해 일본인의 도래수는 5,500명 내지 6,000명에 달한다¹¹⁾고 한다. 이러한 추정은 世祖 元年(1455) 한 해에만 내왕한 日本使臣의 數가 9,116

5) 『海行總載』 全卷 (서울: 삼성인쇄, 1977) 참조.

6) 高正晴子, 朝鮮通信使の響應について, 日本家政學會誌 (1995), 46(11), p.1064. - 조선 측의 500여명에 이르는 통신사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1711년의 견적으로는 1회의 초빙에 총액 100만냥, 동원된 사람은 33만명이었다.

7)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부산:부산직할시, 1989), pp. 738-740.

8) 李鉉淙, 朝鮮前期 對日 交渉史研究 (서울: 韓國研究院, 1964), pp. 66-67.

9) 한문중,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 (전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참조.

10) 『太宗實錄』 卷28, 太宗 14年 8月 丁未條.

11) 『世宗實錄』 卷85, 世宗 21年 5月 辛酉條.

명이었다¹²⁾고 하는 사실로 보아서도 알 수가 있다.

Ⅲ. 朝鮮으로부터의 交易品

1. 交易品目과 特徵

朝·日 간의 外交는 조선에서는 江戶에 倂하는 通信使行과 對馬島에 倂하는 分位역관이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정기적인 歲遣船의 送使倭와 비정규적인 差倭를 倂견하여 외교적인 성격과 교역을 아울러 수행하였다¹³⁾. 對日 간의 通商交易에는 進上과 公貿易 및 私貿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進上의 경우 日本이 朝鮮의 王에게 物品을 獻上하면 朝鮮側이 答禮로 回賜品을 보낸 경우로, 日本으로부터 온 交易物品은 전부가 進上에 해당된다. 進上品을 실은 日本船이 三浦에 도착하면 격식에 따라 영집수속을 하여 使者一行을 상륙시켜 倭館에 유숙하게 하고 國王使 巨魯使의 경우는 중앙에 보고하여 出迎하게 하였다. 公貿易에 해당하는 상례의 使船인 경우에는 매년의 渡船 數를 조사하고, 그 규정에 따라 인원수와 함께 물품을 서울로 보내게 되며,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東平館에 체류하게 되고 使者는 講契와 進上物을 예조에 바친다. 進上品을 받은 예조와 호조에서는 堂下官들을 시켜 물품을 조사한 뒤에 시가에 준하여 상당한 대가의 回賜品을 내린다. 이때 조선 정부는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작용하여, 일본의 사행이 희망하는 物資를 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렇게 전개된 朝·日 간의 交易品 중,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交易品¹⁴⁾을 품목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以上과 같이 對日 간의 交易에 있어서, 朝鮮으로부터의 交易品은 苧布, 麻布, 紬布 등의 織物類를 비롯하여, 毛皮, 大藏經, 書籍, 工藝品과 같은 문화적 물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두 나라간의 交易品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본에서 온 交易品은 染

<표 1>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交易品¹⁵⁾

종 류	내 용
主食物	米, 糙米, 眞米
副食物	松子, 燒酒, 清酒, 茶, 靑魚, 大口, 密果
藥材	人蔘, 五味子, 大黃, 蓮子, 白龍骨, 天麻, 牛黃 등
服飾·織物類	衣服, 襪衣, 綿布, 麻布, 黑麻布, 黑細麻布, 苧布, 紅緞子, 綿紬, 白紬子
書籍類	大藏經, 大般若經, 中國判印大藏經 등
工藝品	鞍子, 梵鐘, 銅錢, 彩花席, 鑰盆, 笏, 香爐 등
動物類	天鵝, 白鵝, 馬, 大犬
毛皮類	虎皮, 豹皮, 藍斜皮, 靑斜皮 등

料, 香料를 비롯한 藥材類, 銀, 銅, 硫黃 등 주로 원료에 해당하는 물품이 많았음에 비하여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交易品은 대장경을 비롯한 직물, 의복류 등의 완성된 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고관들이 선진의식과 대국의식을 가지고 일본과 교섭을 하였기 때문에 回賜品으로 고도의 문화적 생산물을 보내려고 한 것에서 비롯된 것¹⁶⁾이라 생각되며, 또한 이러한 물품을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려고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 織物の 對日交易과 服飾文化

朝·日交易의 交易物품 중, 일본으로 보낸 물품은 주로 직물류나 대장경, 서적 등의 상품이었으며, 이 중에서 직물류가 가장 많았고, 직물의 종류로는 綿布가 가장 많았다¹⁷⁾. 조선조 전기의 직물류의 交易량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체적인 기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서 거래량은 소량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406년(태종 6)경부터는 일본 사행의 횟수가

12) 『世祖實錄』, 卷2, 世祖 1年 12月 己酉條.

13) 기유약조 이후부터는 대마도 도주의 세견선인 세견선의 송사왜 및 차왜가 중심이 되어 교역을 하였다.

14) "일본에서 온 交易品에 관하여는 拙稿, 朝鮮前期 朝鮮通信使와 日本使臣 간의 交易品을 통하여 본 服飾文化 研究-日本으로부터의 輸入品을 중심으로-", 복석 52권 4호 (2002) 참조.

15) 小野晃嗣, 『日本産業發達史の研究』(東京: 至文堂, 1941), pp. 293-294.

16) 김병하, 『李朝前期對日貿易研究』(서울: 선일인쇄사, 1969), p. 31.

17) Ibid., p. 31.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고¹⁸⁾, 이때부터 朝·日 교역품의 양도 점차 증가됨에 따라¹⁹⁾ 식물의 거래량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일간 직물 거래내역과 거래량에 관하여 살펴보면, 定宗 元年(1399)에는 일본 大將軍 足利義滿使가 조선에 와서 綾 100필과 紗·羅 각 50匹을 바친 사실이 있는데²⁰⁾, 당시 조선에서는 綿紬와 苧麻布로서 回賜하였다²¹⁾. 世宗朝에 와서는 이전에 비하여 무역의 양과 질에서 그리고 교역품의 종류에서도 변화가 있어, 倭物의 수입과 직물 교역량도 증가하였는데, 세종 즉위년(1418)부터 세종 10년까지의 직물거래량을 보면, 世宗 5년에는 綿布 3,325필, 麻布가 23,306필, 綿紬가 150필에 달하는 등 綿布의 거래량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世宗 6년부터 綿布의 거래량은 줄어들어 綿布 130필, 綿紬와 苧布가 353필이었으며, 麻布는 오히려 늘어나 5,560필이나 되었다. 즉, 수출품으로서의 면포의 경우, 世宗 5년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났으나 그 이후에는 점차 줄어드는 대신 麻布의 거래량은 늘어났다²²⁾. 이러한 면포에서 마포로 교역품의 종류가 바뀌어진 이유는, 당시 對日 回賜品으로 면포가 과다하게 지출됨으로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면포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世宗 5년 2월에 綿布支出抑制策을 제정함으로써 인하여 면포의 거래가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아진다²³⁾. 즉, 濟用監에서 비축하고 있는 綿布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戶曹에서 倭客人의 回賜品으로 5, 6승 麻布를 사용하자고 청하여, 綿布대신 麻布로서 충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世宗 21년에 이르러서는 일본사신의 숫자와 왕래 횟수 그리고 가지고 오는 交易品의 양도 급증하여, 예조판서 閔義生은 근래에 日本使臣이 빈번히 도래한다는 것과 그 해 1년 동안만도

日本使臣의 수가 부러 1,300여명이나 되고, 이 당시의 日本使臣의 소지물은 2~300駄나 된다고 하였다²⁴⁾. 또한, 世宗 後半 頃に 倭人들이 1년 동안 가지고 오는 교역품의 양은 대체로 4천여 마리나 되었는데, 世宗 29년에는 商倭所持物을 절반 또는 3분의 1을 유보시키고도 1년에 조선에서 가지고 간 불품이 3,000駄이상이었다²⁵⁾고 한다. 이와 같이 일본사신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조선에서의 回賜品도 많아져 世宗 32년 정월에는 일본국 왕사가 가지고 온 蘇木과 銅, 鐵의 대가로 綿紬 1만필을 포소로 보냈으나 부족하였다²⁶⁾고 하는 기록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文宗, 端宗 代에도 지속되다가 世祖의 즉위와 함께 더욱 심화되었는데, 실제 世祖 1년(1455) 한 해에만 내왕한 日本使臣의 數가 수천명에 달한 것을²⁷⁾ 보아도 조선에서의 回賜品의 규모는 막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5세기 중엽에는 일본 사신의 적극적인 면포 사여 요구가 있는 등, 답사물로서 면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일본사신 藤九郎에 관한 기록은²⁸⁾ 綿布 賜與에 대한 적극적인 求請의 例라 하였다. 또한, 世祖 10년(1464)에 大內殿 사행의 銅과 鐵에 대한 대가로 綿布 542필과 麻布 1,080필을 주자 그들은 正布 1,080필은 필요가 없다고 받으려 하지 않고, 綿布의 賜與를 요구하기도 하였다²⁹⁾. 그리고 文宗 元年(1451) 3월 島津貴久使臣이 조선에 와서 일본에 돌아갈 때, 回賜品으로 綿布만 2,394필을 가지고 갔으며, 端宗 元年(1453) 6월에는 琉球國王使臣 道安의 進上物에 대하여 回賜品으로 紬 2,577필, 綿布 3,860필, 布 7,719필을 주었다고 한다³⁰⁾. 世祖 元年 7월에 銅을 가지고 온 藤九郎은 綿布로 지급받기를 원하였으며³¹⁾, 世祖 5년 4월

18) 태종 4년(1405)의 遣使횟수는 8회였으나, 태종 6년에는 16회에 이르고 있다.

19) 太宗 12年(1412)에는 왜선 17척이 興利를 구실로 경상도 부산포에 來泊하였다. 『太宗實錄』, 卷24, 太宗 12年 8月 辛酉條.

20) 『定宗實錄』, 卷1, 定宗 1年 6월 乙酉條.

21) 太宗 16年 7月 21일에 對馬島 宗貞茂에게 回賜한 綿紬와 苧布 50필은 많이 지급된 예이다.

22) 세종 7년의 경우에는 면포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마포가 4,057필이었고, 세종 8년에는 면포 5필, 저포와 민추가 80필 마포가 1,999필이었다.

23) 『世宗實錄』, 卷34, 世宗 8年 12月 乙丑條.

24) 『世宗實錄』, 卷98, 世宗24年 11月 甲戌條.

25) 『世宗實錄』, 卷118, 世宗29年 11月 乙酉條.

26) 『世宗實錄』, 卷127, 世宗32年 閏正月 庚申條.

27) 『世祖實錄』, 卷2, 世祖 1年 12月 己酉條.

28) 『世祖實錄』, 卷1, 世祖 1年 7月 丁酉條.

29) 『世祖實錄』, 卷34, 世祖 10年 9月 丁丑條.

에 山名教豊使人은 紬布와 綿布 1,000필을 求請하였다³²⁾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일본으로부터의 織物의 회사품은 成宗 朝에 이르러 더욱 증가하였는데, 成宗 元年 8월에 伊勢守源政親使臣들이 조선에 와서 綿紬 3,000필과 綿布 5,000필, 白苧布 1,000필을 求請하였으나, 朝廷에서는 源政親에게 綿布와 麻布 각 1,000필만 회사하였다³³⁾. 同 5년 12월에는 일본국왕 사 일행에게 麻布와 綿布 1000필과 白細綿紬 白細苧布 黑細麻布 30필을 지급하였으며³⁴⁾, 同 7년 정월에는 對馬州 태수 宗貞國 使人이 조선에 와서 襦子 2端과 大刀 3個를 진상하고 綿紬와 綿布 1만필을 求請하였으나, 朝廷에서는 綿紬 1,000필과 綿布 3,000필을 사여하였다³⁵⁾. 또한 成宗 7년(1476) 11월의 戶曹 啓에 의하면 成宗 6년 1년간에 서울과 경상도에서 지급된 綿布는 27,201필이었으며, 成宗 10년대에 와서는 직물무역은 더욱 활발하였다. 宗貞國의 직물무역은 이 무렵에 와서 빈번하여져, 成宗 15년 正月에는 사인을 特遣하여 金 45挺과 銅 2鈞를 贈모하고 綿布賜給을 요청하였으며, 同 19년 正月에는 황금 62挺과 朱 220裹를 진상하여 綿布 6,212필과 麻布 494匹 16尺 9寸을 지급 받았다. 또한, 同 20년 정월에도 황금 70挺과 朱紅 1,360裹를 보내어 綿布를 지급 받았다. 이와 같이 볼 때, 15세기에 와서 朝·日交易은 큰 변화를 보였는데, 왜상들이 가지고 오는 물품들의 양이 많아지고 그 품목도 금, 은, 동, 납, 유황 등 광산물과 소목, 호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선의 답사물도 전술한 바와 같이 15세기 중엽에는 마포 대신 면포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여³⁶⁾, 15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5세기에 이르러 답사물로 綿布가 점차 증가하게 된 것은, 당시 조선내의 면

포 생산량의 증가³⁷⁾와 일본사신의 적극적인 면포 사여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면포는 당시 민간 의복과 대용화폐로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 그 수요가 급증하였고, 또한 朝·日 貿易을 통해 다량의 면포가 일본으로 유출됨에 따라 면화재배와 면직업의 발전을 촉진할 대내외적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15세기 중엽부터 면화생산의 장려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어 평안도에서 전라도에 이르기까지 목면이 보급, 생산되게 되었고³⁸⁾, 그 결과 15세기 후반 경에는 면포의 생산이 확대되어 남너귀천 할 것 없이 모두 면포를 입게 되었다³⁹⁾.

한편, 日本使臣들의 綿布賜與의 요구가 많아진 것은 絹布, 麻布와 같은 織物類는 일본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어 널리 사용이 되고 있었으나, 木棉은 아직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수입에만 의존하였던 귀한 직물이었기 때문으로 史料된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국내경제의 성장과 함께 부사층이나 상인층을 중심으로 의복 등에 면포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면포의 수요가 확대되었는데⁴⁰⁾, 그 사용처는 대부분 그 당시 유행하였던 衣服의 재료나 배의 돛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綿布의 과도한 수출증가는, 조선 국내에서의 면포조달이 곤란한 상태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예로 綿布의 輸出이 극한에 달하였던 成宗 16년 10월의 경우를 보면, 司贖寺가 가지고 있는 노비신공 綿布는 724,500필이었고, 麻布는 18만 여필이었으며, 17년경에는 倭人 回奉이 年 50만 필 이상이었다⁴¹⁾고 한다. 당시에는 倭人에게 지급하는 綿布의 양이 상당하였으므로, 국고 보유의 綿紬나 麻布는 거의 고갈되고 綿布만 조금 남아 있을 정도로⁴²⁾ 국가의 재정상 부담은 심각하였으며, 朝廷에서

30) 『端宗實錄』 卷5, 端宗 元年 6月 庚子條.

31) 『世祖實錄』 卷1, 世祖 1年 7月 丁酉條.

32) 『世祖實錄』 卷1, 世祖 1年 7月 丁酉條, 『世祖實錄』 卷16, 世祖 5年 4月 戊辰條.

33) 『成宗實錄』 卷7, 元年 9月 己巳 乙丑條.

34) 『成宗實錄』 卷13, 成宗 2年 12月 庚辰條.

35) 『成宗實錄』 卷63, 成宗 7年 正月 丙寅 甲戌條.

36) 이정수, "15.16세기의 대일무역과 경제변동," *부대사학* 22권 (1998), p.13.

37) 『世宗實錄』 卷118, 世宗 29年 11月 乙酉條.

38) 『世宗實錄』 卷69, 世宗 17年 9月 庚辰條. 『世宗實錄』 卷71, 世宗 18年 1月 壬申條.

39) 『世祖實錄』 卷3, 世祖 2年 3月 丁酉條.

40) 1467년 應仁의 亂 이후 보다 양질의 면포가 수입됨에 따라 점차 京都를 중심으로 하는 귀족들도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는 軍需나 祿俸 등으로 지급되는 織物의 부족으로 자주 논란이 되었을 정도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 補完策의 하나로 成宗 16년에 私貿易을 허가하였고⁴¹⁾, 同 25년에는 일본인들에게 많은 이윤을 보장하였던 私獻貿易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⁴²⁾. 또한 무역품의 가격을 인하시키고, 왜인에게 綿布로만 답사하기가 어렵게 되어 成宗 23년(1492)부터는 綿布와 麻布, 綿紬 세 가지로 나누어 답사하도록 하였다⁴³⁾.

한편, 16세기에 들어와 일본사신들이 가지고 오는 동과 소목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 1500년(연산군 6)에는 대마도주가 한 번에 동 11만근을 보내어 공무역 하가를 청하는 등⁴⁴⁾, 무역의 규모가 훨씬 커졌으며, 이에 따라 한번에 지급되는 면포량만 하여도 4만 3천여필이 지급될 정도였다⁴⁵⁾. 특히, 이 시기에는 연산군의 즉위와 함께 왕실의 사치와 무절제한 국고 지출이 늘어나 朝·日 貿易은 양과 질에 있어 큰 변화를 보였다. 1505년(연산군 11)과 1506년 두 해 동안에 부상대교가 소유한 진주, 봉철, 금 등을 집중 구입하였는데, 정부가 부상대교들에게 사치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면포는 179,813필이었으며, 마포가 10,609필 그리고 米穀이 22,166석이나 되었다⁴⁶⁾. 이처럼 재정지출이 많아지면서 국고부족을 가져오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해의 공물을 미리 징수하거나⁴⁷⁾, 면포의 주 수입원이었던 노비 신공을 한 사람마다 한 필씩 더 징수하거나⁴⁸⁾ 또는 田結이나 면

포를 부과하는⁴⁹⁾ 등 징포책을 강화하였다⁵⁰⁾.

朝·日貿易은 1525년(중종 20)경을 전후하여 큰 변화가 있었는데, 倭使들이 가져오는 商物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늘어났고, 조선 정부의 무역 규제가 보다 강화되자 무역의 형태는 공무역 중심에서 사무역·밀무역으로 옮겨갔다. 1523년(중종 18)에 일본 국왕사가 무역한 면포의 양이 10만 필에 달하였고⁵¹⁾, 다음해에는 大內殿의 사신이 많은 상물을 가져왔으며⁵²⁾, 그리고 1525년(중종 20)에는 국왕사 등이 가져온 호초 등 상물의 가격이 8만 5천 필에⁵³⁾ 달할 정도였다. 또한 1528년(중종 23)에는 일본국왕사가 잇달아 내왕하여 공무역한 수량만도 면포 8만 1천 5백필에 이르렀고, 사무역한 수량은 공무역의 배나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⁵⁴⁾. 1540년(중종 35)경에 들어와서는 대일교역품이 기존의 동철, 호초, 소목 등에서 은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는데, 1542년(중종 37)에는 일본 국왕사 安心東堂이 은 8만냥과 유황 20만 근을 가지고 왔으며⁵⁵⁾, 이듬해에도 일본국왕사가 많은 양의 은과 소목 등을 가지고 와서⁵⁶⁾, 공무역한 수량이 면포 약 6만 5천 필에 달하였다. 이 무렵에 일본인들이 공무역에 의하여 한 해 동안 가지고 가는 면포만도 선박으로 6, 70隻이나 달하였다⁵⁷⁾.

이렇듯 16세기 초, 중엽에는 일본 사신들이 가져오는 교역품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그 품목에서도 은이 추가되어 있으며, 조선으로부터의 답사물도 면

41) 『成宗實錄』 卷217, 成宗 19年 6月 丁未條.

42) 『成宗實錄』 卷289, 成宗 25年 4月 癸亥條.

43) 『成宗實錄』 卷289, 成宗 25年 4月 乙丑條.

44) 『成宗實錄』 卷288, 成宗 25年 3月 己酉 辛亥條.

45) 『成宗實錄』 卷261, 成宗 23年 1月 癸未條.

46) 『燕山君日記』 卷38, 燕山君 6年 8月 甲午條, 乙未條.

47) 『燕山君日記』 卷29, 燕山君 4年 6月 丙子條.

48) 『燕山君日記』 卷59, 燕山君 11年 9月. 『燕山君日記』 卷61, 燕山君 12年.

49) 『燕山君日記』 卷55, 燕山君 10年 8月 壬申條.

50) 『燕山君日記』 卷59, 燕山君 11年 9月 辛亥條.

51) 『燕山君日記』 卷62, 燕山君 12年 6月 丙子條.

52) 이정수, *Op. cit.*, p. 19.

53) 『中宗實錄』 卷48, 中宗 18年 7月 甲午條.

54) 『中宗實錄』 卷52, 中宗 19年 11月 辛巳條.

55) 『中宗實錄』 卷55, 中宗 20年 8月 乙巳條.

56) 『中宗實錄』 卷62, 中宗 23年 8月 壬戌條.

57)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4月 庚午條.

58) 『中宗實錄』 卷100, 中宗 38年 3月 丙寅條.

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朝·日交易에 있어 면포의 교역량이 급증하고 대용화폐로서의 면포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그 대비책으로 소농층에 대한 징포책을 강화하여 부족한 면포를 충당하기로 하였다. 당시 정부가 법으로 규정하여 공물로 징수하였던 면포는 5승, 35尺이 기준이었으나, 이 규정의 면포는 그 자체가 직조에 상당한 노동력이 투입되는 고액 화폐였기 때문에 민간의 소액거래에는 적합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부세체제나 朝·日貿易에는 5승 35척 이상의 良布가 사용되었으며⁵⁹⁾, 민간에서는 4승 35척 미만의 惡布가 유통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즉 사무역으로 자본력을 가진 지주 부상층은 재산의 보존 수단으로나 일본과의 교역을 위하여 良布를 축척하였고, 민간에서는 惡布만 유통되는 이중유통구조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면포의 惡布化 경향은 연산군 후반경에 와서 더욱 심하였는데, 특히 이 시기의 지나친 사치의 경향은 면포의 고갈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고, 이로 인한 민간에서의 惡布의 유통은 당시 물가에 즉시 반영되어 불가상승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IV. 結 言

본 연구는 조선시대 15, 16세기에 전개된 일본과의 교역에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교역품 중, 직물류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봄으로써, 조선사회에서의 직물문화와 朝·日間의 복식문화의 한 면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朝鮮과 日本과의 교역은 日本使臣이 조선에 進上을 하면, 조선에서는 그 答禮로 回賜品을 보내는 형태의 交易이었으며, 釜山浦, 乃而浦, 鹽浦의 三浦가 通交의 중심이 되었다.

兩國의 교역품을 보면, 일본으로부터 온 교역품은 주로 染料, 香料를 비롯하여 藥材類, 銀, 銅, 硫黃 등 원료에 해당하는 물품이 많았음에 비하여,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낸 교역품은 苧布, 麻布, 紬布 등의 織物類를 비롯하여, 毛皮, 大藏經, 書籍, 工藝品과 같은

문화적 물품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고관들이 선진의식과 대국의식을 가지고 일본과 교섭을 하였기 때문에 回賜品으로는 고도의 문화적 생산물을 보내려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일 교역품 중 직물은 조선초기부터 16세기까지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품목으로, 15, 16세기에 있어서 교역품으로서의 직물은 그 종류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15세기 초기에는 朝·日貿易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 부역의 양과 질에서 그리고 교역품의 종류에서도 변화가 있어, 倭物의 수입과 직물 교역량도 증가하였는데, 당시 면포가 주요 교역 직물이었다. 세종 6년 이후에는 대일 교역품으로 면포가 과다하게 지출됨으로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면포량의 급속한 감소로 인하여 면포의 거래가 줄어들고 마포의 거래량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15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일본 사신의 적극적인 면포 사역 요구와 당시 조선내의 면화생산의 적극적인 장려로 면포생산량이 증가하여 대일 교역품목으로 마포 대신 면포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綿布의 과도한 거래량 증가는 국내에서의 면포조달이 곤란한 상태로까지 이르게 되자, 成宗 23년(1492)부터는 綿布와 麻布, 綿紬새 가지로 나누어 답사하도록 하였다. 16세기 초, 중엽에 이르러 조선에서는 면포생산의 확대로 면포가 대일 교역품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일본으로부터 多量の 銀이 들어오는 등 교역품의 규모가 더욱 커짐에 따라 면포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朝·日交易에 있어 면포의 교역량이 급증하고 대용화폐로서의 면포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그 대비책으로 징포책을 강화하여 부족한 면포를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자본력을 가진 지주 부상층은 재산의 보존수단으로나 일본과의 교역을 위하여 良布를 축척하게 되었고, 민간에서는 惡布만 유통되는 이중유통구조가 심화되었다. 당시 면포의 惡布化 경향과 귀족의 사치의 경향은 면포의 고갈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고, 이로 인한 민간에서의 惡布의 유통은 물가상승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

59) 『中宗實錄』 卷102, 中宗 39年 4月 壬辰條.

60) 『成宗實錄』 卷236, 成宗 21年 1月 己巳條. 『成宗實錄』 卷238, 成宗 21年 3月 乙丑條.

래하였다. 이렇듯, 조선시대 15, 16세기에 있어서 직물은 대일 교역품 중,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교역품 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요한 의복의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었으며, 관리들의 祿俸, 賞賜, 농민들의 租稅用 등의 貨幣的 기능을 하는 교환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어 조선사회 내에서의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 전기의 조·일간의 교역은 조선사절과 일본사신 간의 교류에 의한 결과로서, 본 연구의 韓·日交易과 그 결과 파생된 제 현상을 통하여 조선 전기의 직물문화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朝鮮王朝實錄』

『海行總裁』

김병하(1969). *李朝前期對日貿易研究*, 서울: 선일인

쇄사.

金龍鮮譯, 中村榮孝(1982). *日本은 우리가 키웠다 朝鮮通信使*. 서울: 東湖書館.

나종우(1992). “한국중세대일교섭사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부산시사편찬위원회(1989). *부산시사*. 부산: 부산직할시.

이정수(1998). “15,16세기의 대일무역과 경제변동.” *부대사학* 22권.

李鉉淙(1964). *朝鮮前期 對日 交涉史研究*. 서울: 韓國研究院.

한분중(1996). “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 전 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高正晴子(1995). “朝鮮通信使の饗應について.” *日本家政學會誌* 46권 11호.

小野晃嗣(1941). *日本産業發達史の研究*. 東京: 至文堂.